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2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1개 중 1개 · 자막 11,035구간 · 발언기록 2,040문단

발체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 의료·인력 · 1부 07:20:54
- 지역·공공의료 · 1부 00:34:38
- 복지·급여 · 1부 00:26:37
- 재정·운영 · 1부 06:59:52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체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의료·인력

1부 07:20:54-07:21:39 · 영상 확인 [↗](#)

>> 어 이산이 산일에서는 지난 국감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은 어 없어 보입니다. 조사위원 668명 중에 의사가 229명 간호사가 317명으로 81.7%의 %의를 차지합니다. 전담 조사용 94명 가운데 83%가 간호사입니다. 인증 평가는 진료와 간호뿐만 아니라 약재, 감염관리, 시설 안전, 영양, 제할까지 평가합니다. 영역별 전문 인력이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같은 사람이 오래 맡고 있는 동안 각 평가 영역에 필요한 전문성은 제대로 채워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공공의료

1부 00:34:38-00:35:26 · 영상 확인 [↗](#)

>> 하지만 작년 35개 지방 의료원 중에 30여개 병원이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병원엔 임금 채불 또 차입금 문제 등 경영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들어 지방의료원의 지원을 늘리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등회를 통해서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공공정책 급여를 통해서 기관 단위 보상 등이 시행되면서 또 지방의료원이 공익에 기여하고 공익의 기여에서 발생한 이른바 착한 적자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이 그동안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어려워진만큼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직접 지원해 나서야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복지·급여

[1부 00:26:37-00:27:25 · 영상 확인](#)

>> 예. 국장님 복지부는 책임 보험료와 대불 비용의 이중 부담을 대부제도 폐지 이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대불 비용은 매년 모든 의료 기간에 반복해서 걷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신규 개설자 중심으로 지급을 했고 그리고 추가 징수도 2018년은 의원급 2019년 2020년 병원급 이후로는 징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재원도 약 42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중 부담 자체가 걱정이 된다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부담금을 낮추거나 유회하고 추가 징수 기준을 조정하는 방법부터 검토를 했어도 됐는데 부담을 조정하는 것과 피해자 안정 자체를 부셔버린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운영

[1부 06:59:52-07:00:41 · 영상 확인](#)

80%밖에 아직까지 그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려 수익이 역시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이런 경영 수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A 등급을 받은 의료원도 운영하는 데에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필수료 평가 뭐 운영 평가 최근 또 경영 평가도 있습니다. 바로 평가가 너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평가 제도를 어느 정도 좀 손을 봐서 어 그 현대화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맞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면서 어 보건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	자막 상태	구간 수
1부 · 2ZWTz17FCck	자막 수집	11,035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영상 설명에 시각별 진행 안내가 없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21 11:10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재정렌즈는 음성전사(Whisper)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영상·전체 발언기록·자막 내려받기 ↗](#)